

BP통계로 본 '92세계석유소비 동향

鄭元俊

<석유협회 조사과장>

「석유 소비증가를 세계 1위」. 이것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방송전파를 타서 낮이 익은 에너지절약 공익광고의 공통된 카피이다. 세계최고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시현하는 만큼 주종에너지원인 석유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최근에야 새삼스럽게 환기되는 것은 경제성장이 '91년의 8.4%에서 '92년에 4.7%로 크게 둔화된 상황에서 석유소비가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간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에너지통계자료 「BP 통계」 1993년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석유소비증가율은 지난해에도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로써 88년 이후 석유소비증가 부문에서 4년연속 1위의 쾌거(?)를 이룩하였다.

'92년 한국의 석유소비는 150만b/d(벙커링포함)로써 전년대비 21.1%(26만 5천b/d) 증가하였다. 세계 총소비가 65만 5천b/d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세계석유소비증가에 있어 한국의 기여도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총소비에서 한국의 소비비중은 2.3%로써 전년대비 0.5% 포인트 상승하여 세계 11위 규모를 차지하였다.

'88년이후 소비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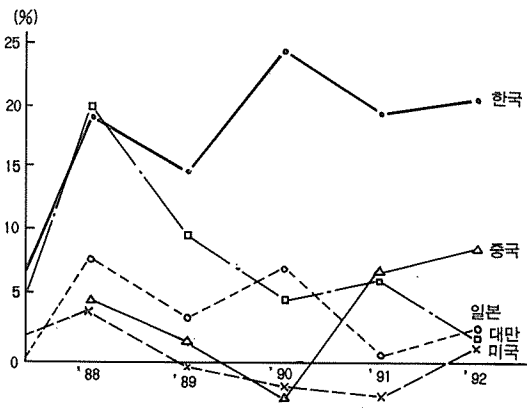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는 '88년 올림픽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88년도에 74만b/d에서 4년만에 꼭 2배로 증가하였다.

석유소비가 이처럼 급증하게 된 데에는 국제석유가격의 안정과 연료유 低價유지정책에 의한 수요량 증가 외에 석탄으로부터의 석유대체, 원자

력 개발의 부진, 차량의 보급증가 및 석유화학부문의 팽창등에 의한 구조적 수요증가에 기인하였다.

이로써 脫석유정책에 의하여 2차석유위기이후 매년 축소되어 오던 석유의존도가 '8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 주요석유(에너지) 소

석유 소비 증가율 추이



비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멕시코, 브라질과 함께 석유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이다. 멕시코와 브라질이 산유국인 사실을 감안하면 실질적

으로는 석유의존도가 가장 높은 석유소비국이 되는 것이다. <표 참조>

세계 석유소비동향

지난해 세계 석유소비는 6,538만b/d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美國이 1/4인 1,624만b/d를 소비하여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미국은 '89년 이후 소비감소를 보여오다가 지난해 경제회복에 힘입어 2.0% 증가하였다.

제 2위의 대소비국 CIS는 '88년 이후 지속적인 생산 및 소비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석유소비가 14.6%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소비감소가 생산감소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수출여력이 증가하여 국제유가안정에 一助하였다.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 있는 중국은 개방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석유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노후유전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생산이 담보상태에 있어 '94년안에 석유순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올림픽을 개최한 스페인은 석유소비가 1.4%, 그리고 총에너지소비가 0.8% 증가에 그

'92 주요국 석유소비 (벵커링포함)

국명	소비량 (천 b/d)	세계증비중 (%)	석유의존도 (%)	순 위
미 국	16,240	25.0	39.8	1
C I S	6,675	10.7	26.9	2
일 본	5,545	8.3	57.3	3
독 일	2,850	4.3	40.1	4
중 국	2,615	4.1	18.8	5
프 랑 스	2,010	3.0	40.4	6
이탈리아	1,945	3.0	61.6	7
영 국	1,745	2.6	39.0	8
캐 나 다	1,665	2.4	36.6	9
멕 시 코	1,605	2.3	69.3	10
한 국	1,500	2.3	62.1	11
브 라 질	1,305	2.2	63.0	12
인 도	1,285	2.0	31.7	13

쳐 올림픽후 에너지과소비를 보이고 있는 한국과 비교된다.

지역별로 석유소비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곳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아시아권이다. 한국에 이어 필리핀이 16.8%로 세계 2위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새로이 신흥공업국가권에 편입된 태국이 12.6%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아시아·대양주지역은 석유자원의 혜택으로부터 가장 소외된 곳 가운데 하나이다. 생산량대비 소비량으로 나타낸 自給率이 46%에 불과하여 소요 석유의 절반이상은 域外로부터 輸入해야 한다. 현재 석유수출국은 중국(23만 5천b/d), 인도네시아(81만b/d), 말레이시아(37만b/d), 브루나이(18만b/d)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대신 아시아·대양주에는 석탄과 천연가스가 비교적 고르게 부존되어 있다. 석탄소비는 세계총소비의 40%를 차지하여 대기오염이 크게 우려된다. 특히 중국의 석탄소비는 세계전체의 1/4을 차지하여 이웃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오염의 越境문제

가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다. 생활수준향상과 환경오염의식 강화등에 기인하여 아시아지역은 천연가스의 이용·보급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30.8%의 세계 1위의 소비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석유생산을 北海지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서유럽은 化石연료의 부존이 세계에서 가장 빈약하다. 따라서 일찍부터 원자력, 潮力, 風力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눈을 돌렸으며, 현재 원자력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동유럽은 지난해 유일하게 석유소비감소를 기록한 지역이다. 舊소련의 해체와 동유럽의 정치체제 변혁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석유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의 소비가 감소하였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수출여력이 있는 지역은 中東, 中南美, 아프리카등 세곳이다. 중동지역은 세계 총석유매장량의 65.7%를 보유한 반면 소비비중은 5.4%에 불과하여 무한한 수출잠재력을 갖고 있다. ♠

생활속의 환경운동

수돗물 받아두었다 마시자

하루정도 지나면 염소제거-불순물 분리



수돗물도 마시는 방법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수돗물을 가능하면 길그릇에 받아 하루정도 둔다. 하루쯤 시간이 지나면 정수장에서 소독할 때 투입된 잔류염소가 제거되고 불순물이 가라앉는다.

불순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윗물을 주전자에 따라 붓고 유리병에 넣어 냉장고의 맨 아래 칸에 넣어둔다. 물이 섭씨 4도가 되게해서 마실때 맛이 가장 좋다.

맹물을 마시기가 꺼림칙하면 불순물이 가라앉은 후, 윗물을 다른 그릇에 따라낸 다음 보리차를 넣고 섭씨 1백도에서 5분정도 끓인다. 그러면 각종 휘발성 물질이 기화(氣化)하고 흑시라도 들어 있을지 모를 중금속이 보리에 흡착돼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